

광주·전남 이색 당선인



14일 무소속 박우량 신안군수 당선인이 당선 후 관계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운동원들과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아내 간병 위해 불출마... 4년만에 3선 성공

박우량 신안군수

전남 신안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박우량(62) 후보가 4년만에 재임성하는데 성공했다. 박 당선자는 재선 신안군수 출신으로 4년을 건너 뛰어 3선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14일 새벽까지 진행된 개표에서 박 당선자는 무소속 고길호 후보와 막판까지 가는 접전 끝에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 박 당선자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하고 후보가 취임도 하지 못한채 퇴진한 이후 실시된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이후 재선에 성공하면서 낙후된 신안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선 후 4년째 재선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사퇴했다. 유방암 투병중이던 아내 병간호를 위해 불출마를 결정했지만, 각종 루머가 지역에서 떠돌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를 이겨내고 4년 만에 다시 신안군에 입성하게 됐다.

박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신안군민들은 정당을 떠나 인물과 능력을 보고 무소속 후보인 저 박우량을 선택해 주셨다"며 "저의 당선은 진정한 정치 1번지의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앞으로 천사(1004)의 섬 신안을 다시 한 번 비상시키겠다"면서 "수산업과 관광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농업인의 1대1 맞춤형 지도체제를 구축,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se@kwangju.co.kr

'133표차 신승' 정의당 첫 도의회 진출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당선인이 정의당 첫 전남도의회에 진출한다. 전남도의원 영암군 제2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이보라미 후보는 지난 13일 개표 결과, 7257표(44.19%)를 획득해 7124표(43.3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손남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133표차 짜릿한 승리였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06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며 민주노동당 후보로

영암군의회에 도전해 5·6대 영암군의회를 지냈다. 2014년 전남도의회에 도전했다가 낙선했고, 이번에 재도전에 도의원배지를 달게 됐다. 그는 "정의당의 광역의회 진출은 지방정치의 변화를 열망하는 영암군민의 뜻"이라며 "특히 서울 태생인 저를 선택한 것은 확연·지역·정당을 떠나 정책대결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 당선인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시 초·중·고를 다녔다. 중앙대 화학공학과 87학번으로 학생운동을 했다. 대학 졸업 후 인

천에 있는 한라중공업 설계실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됐다. 1997년 영암으로 이전한 삼호중공업을 따라 근거지를 전남으로 옮겼다. 그는 현재도 현대삼호중공업 선형 도장방식기술팀 대리로 일하고 있다. "내 삶이 바뀌는 영암, 골목까지 따뜻한 영암"을 기치로 내건 이 당선인은 "노동자는 노동으로 대접받고, 농민은 마음놓고 농사 지으며, 아이들이 행복한 영암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0대 청자도공 아가씨... 광주일보 선정 '뉴파워'

김보미 강진군의원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에서 20대 '아가씨 도공'이 기초의원으로서 당선돼 화제다. 강진군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보미(여·28) 후보는 청자명인 아버지 김경진씨에 이어 강진에서 2대째 청자를 빚고 있는 젊은 예술인이다. 김 당선인은 강진 청자에 자개와 옷칠이라는 전통적인 요소를 새롭게 접목해 만든 청자커피 핸드드립세트 선보여 2013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청자공모전, 전라남도공예품대전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5년 광주일보 선정 '뉴파워 63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청자의 매력에 빠진 젊은 예술인이 향후 어떤 빛깔로 지방자치를 빛어나갈지 지역 내에서 벌써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제 강진군의원에 입성한 김 당

선인은 강진의 대표 축제인 청자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청자 산업 활성화와 지역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당선인은 "강진은 청자의 고장이며, 역사적으로도 강진 청자를 동아시아에서 유명한 예술품이었지만 현재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진 청자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이를 통해 잘 살 수 있는 강진을 만들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갔다"고 강조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고향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됐다"면서 "청장의 아름다운 푸른 빛처럼 아름다운 강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국 최다 8선... 지방의회 역사의 산 증인

강필구 영광군의원



전국 최다 8선 군의원이 영광에서 탄생했다. 주인공은 영광군의원 의장인 강필구 당선인. 강 당선인은 지난 13일 치른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광군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해 당당히 1위로 배지를 달았다. 전국에서 8선 기초의원인 경북 안동시 의회 이재갑 의원과 강 의장 두 명 뿐이다. 강 당선인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1991년 무소속으로 영광군의회에 진출한 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내리 7번 군의원에 당선됐다. 민선 1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지방의회 역사의 산 증인이다. 그는 제7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다.

전남시·군의회의 의장회 회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시도대표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국의회 의정활동을 주도했다. 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찾다니며 지방의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건의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친 강 의장은 "국회의원과 인연의 주춧돌을 쌓았다"고 말했다. 강 당선인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심부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보다 낮은 자세로 항상 군민 곁에서 울고 웃으며, 한결 같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군의원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원룸 매매 [상가원룸 신축전문]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1층 ★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10개) (투룸 2개) 4층 (주택) ★공원앞 전망최고★ 보 9천 월 600만 (용3억) ▶매가 9억5천만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23평 (모든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시세 1억3천 ▶매가 6천300만

상가 건물매매 북구 용봉동 우미A.P.T 상대 1분(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상가건물 안집 있음) 보 1억6천 만 월 430만 ▶매가 11억2천만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상가빌딩(추천) 토지 추천 1) 서구 매월동 348평 유등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로대로 접 ▶시세 18억 - 최저가 6억6천